

ASSITEJ Korea shares the following messages which were delivered to the guests of the Next Generation Asia Residency Program Showcase.  
We hope it helps you to understand the program.

For the guests who came to the showcase,

Good Morning?  
This is Jackie Eun Ju Chang, Artistic Director of the Next Generation Asia Residency Program.  
Thank you for coming to the showcase presentation of our program.

This program embraces our special heart and mind: the young as enjoyers not as consumers.

As artists, we believe that we have a duty to look the young audience as culture enjoyers who can enjoy the art we are creating, but not as ordinary consumers who buy and use things that already made. And young people have a right to be seen that way.  
This showcase is an intermediate step of the difficult choices of participants who try to respect it; Participants sometimes explored unfamiliar sensations and perceptions by trying things they had never done before, trying to communicate non-linguistically without an interpreter, and comparing familiar grown-ups' perceptions.

We invite you as colleagues and comrades to share these intermediate processes of change which will be gradually expanded by participants. So this show case is prepared as the way we have been doing. Focusing on the sensations and perceptions of the teenager audience.

If there is anything offensive or objectionable in your culture, it is my responsibility as the artistic director, and is not the mistakes of the participants.  
I appreciate your kind advice in advance.

Then, let's share the unfamiliar and difficult processes which were deliberately taken by participants. Can we be good adults by art for the youth who already have lost fresher air, water and beauty of nature than what we have enjoyed? Is habitual way of responding right?

Before the showcase on August 27, 2022  
With heart and respect, Jackie Eun Ju Chang.

2022 차세대 아시아 레지던시 프로그램 발표회에 오신 분들에게 전달했던 아래 본문을 공유합니다.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표회에 찾아주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아시아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예술감독을 맡은 장재기은주입니다.  
프로그램의 쇼케이스 발표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이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문화의 “향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청소년관객을 우리가 만든 예술을 사서 쓰는 “소비자로서”가 아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자로서” 바라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이런 마음과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선택했던 어려운 길들의 중간 과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때때로 통역 없이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소통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고 익숙하게 잘 써오던 감각을 누르고 일부러 낯선 감각을 찾아 해맸습니다.

이 짧은 발표는 결과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 확대될 변화의 중간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을 동료로서 동지로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문화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되거나 불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가자들의 실수가 아닌 예술감독인 저의 책임입니다.  
알려주신다면 소중하게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공기과 물을 마실 기회를 이미 잃어버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좋은 어른이 되고자 일부러 굳이 낯선 길을 택한 참가자들과 함께 해 주세요.

발표회를 앞두고...2022년 8월 27일  
장 재기은주 올림

2022次世代アジアレジデンシープログラム発表会にいらっしゃった方々にお渡しした下記本文を共有します°  
プログラムを理解するのに役立ててください°

発表会に来てくださった方々に

こんにちは?  
次世代アジアレジデンシープログラムの芸術監督を務めたチャン・ジェキウンジュです°ショーケース発表会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には特別な心を込めました°  
それは‘青少年が文化の「消費者」ではなく‘文化の「香油者」になることを望む心です°

私たちの芸術家たちは‘青少年観客を私たちが作った芸術を買って使う「消費者として」ではなく‘私たちが作っている芸術と一緒に楽しむことができる「文化の香油者」として見つめる義務があります°そして‘青少年にはそのように見る権利があります°今回のショーケースは‘このような心と権利を尊重するために選んだ難しい道の間過程です°

参加者は時々通訳なしに言語に依存しな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一度もやってみたかったことを試み°お使い慣れた感覚を押してわざわざ見知らぬ感覚を探し回りました°

この短い発表は結果として提示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徐々に拡大する変化の間過程と一緒に分かち合おうと皆さんを仲間として同志として招待するのです°ですから‘私たちがやってきた方法をそのまま皆さんにお見せしたいと思います°

もし皆さんの文化で気持ち悪く思われたり不快なことがあるならばそれは参加者の間違いではなく芸術監督である私の責任です°教えてくださったら大切に学び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れから私たちが生きてきた習慣のために‘私たちよりも良い空気と水を飲む機会をすでに失ってしまい°今を生きている青少年たちにそれでも良い大人になるためにわざとあえて見知らぬ道を選んだ参加者たちと一緒にしてください°

発表会を前に.....2022年8月27日  
チャン・ジェキウンジュが心と尊敬を込めてこの手紙を差し上げます°